



위만조선의 성격 규명을 위한 베트남 고대사 비교 연구: 남월국(南越國)을 중심으로*

권오영**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한국사학전공 교수

위만조선은 기원전 194년부터 108년까지 존속하였던 왕조이다. 위만조선은 진·한(秦漢) 교체기에 위만이라는 인물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세운 왕조이다. 그 손자인 우거왕 대에 한나라 군대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87년 동안 존속하였지만 지리적 위치와 국가적 성격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데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서 성장하고 멸망한 남월국의 역사도 위만조선과 닮은 점이 매우 많다. 따라서 위만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월국을 참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광동성과 광서성, 그리고 베트남 북부에 분포하는 남월국 및 영남7군의 무덤을 살펴본 결과 위만조선과 낙랑군의 관련 자료와 유사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간성과 공간성, 종족성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위만조선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위만조선, 평양, 남월국, 광주, 한묘, 목곽묘, 전실묘

I. 머리말

위만조선은 기원전 194년부터 108년까지 존속하였던 왕조이다. 진·한 교체기에 한의 공신이던 연왕(燕王) 노관(盧綰)이 정치적 이유로 흉노로 망명하자 그 휘하에 있던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세운 왕조이다. 그 손자인 우거(右渠) 대에 한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87년 동안 존속하였지만 지리적인 위치와 국가적 발전 수준 등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조차 분명치 않은 점이 많다.

한국고대사 연구에서 위만조선의 비중은 매우 낮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관심은 이상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뜨거운 반면, 분명한 역

* 이 연구는 현충교육문화재단 학술연구지원기금 인문학 연구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koy1108@snu.ac.kr

사적 실체이며 삼국과의 계승관계가 분명한 위만조선에 대한 관심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터인데 관련된 자료의 부족, 연구주제의 개발 실패 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위만조선에 관한 연구 주제는 초기에는 위만의 국적 문제에 집중되다가, 그 후 지배집단의 종족적 구성, 교역의 성격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논의는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위만조선과 관련된 고고학적 자료에 대한 검토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헌적인 연구 성과와 결합된 새로운 주제가 개발되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는다.

위만조선에 대한 외국 학계의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전개된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위만조선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세죽리-연화보유형 공간에서 전개된 초기 철기문화의 주체를 전국(戰國) 연(燕)과 직결시키고 이 문화가 일본열도에 유입되는 과정을 중시하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고 있으나 위만조선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점이 특징이다.

위만조선의 위치와 중심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정인성, 2018; 송호정, 2019) 왕성인 왕검성(王險城)의 위치를 대동강 유역의 평양으로 보는 설과 요령성 요동지역 어디론가 보는 설로 나뉜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부는 현재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요하 동편, 청천강 이북에서 발달한 세죽리-연화보유형 문화를 위만조선과 연관지으려는 견해가 최근 제기되고 있으나 이곳은 위만조선의 변방, 혹은 한과 위만조선의 접경일지언정 중심부로 보기는 어렵다.

위치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수준이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합의된 내용이 거의 없다. 위만조선의 주민구성이 재지계와 중국 연계(燕系)로 구성된 연합왕조라는 점, 한의 외신(外臣)으로 자리매김되면서 한반도의 여러 정치체들의 교역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 초보적이거나 고대국가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점 등이 주장될 뿐 구체적인 연구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만조선과 관련된 문헌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의 고대국가 발전과 교역 관련 이론에 대한 탐색(최몽룡, 1985)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위만조선의 왕성인 왕검성이 평양 일대일 가능성은 높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원전 2세기 무렵 이곳에서 위만조선에 비정할 만한 유적을 찾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서는 ‘이원적 종족지배 구조’로 상정되는 위만조선의 역사상에 부합되는 고고 자료를 찾으려는 무리한 시도라는 평가가 내려진 바 있다(오영찬, 2014).

위만조선 연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漢)이라는 제국의 주변에 소재하며 위만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회발전 과정을 밟고 한에 의해 차례로 멸망당하거나 약화된 흉노(匈奴), 오손(烏孫), 야랑(夜郎), 전(滇), 남월(南越) 등에 대한 비교사적 관심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렇듯 연구가 부진한 이유는 위만조선의 사정을 기록한 『사기』가 한과 위만조선의 교섭과 전쟁에 치우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기록의 부족은 고고학적 자료로 만회되어야 하지만 위치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느 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난항에 봉착하게 된다. 요령성 일대에서 발견된 초기 철기문화를 위만과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평양의 이른바 한계문화, 혹은 낙랑문화를 통해 위만조선을 바라볼 것인지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사 개설서나 고고학 개설서에서도 위만조선은 별도의 장절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고학회의 『한국고고학강의』는 시대구분을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삼국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만조선을 비롯한 고조선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 초기철기시대를 서술한 장에서 박스로 “고조선의 위치”라는 짧은 글이 있을 뿐이다(한국고고학회, 2007). 그 후에 출간된 『한국고고학이해』에서는 “청동기·초기철기시대와 고조선의 문화”라는 장에서 요서-요동지역의 세형동검문화를 윤가춘유형, 상보춘유형, 서황산둔유형으로 삼분하고 상보춘유형이 위만조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정도이다(한국고고학회, 2023).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에서는 윤가춘유형과 상보춘유형이 지속되는 천산산맥 넘어 요동 남부와 동부지역을 위만조선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이청규, 2020). 아울러 왕검성과 낙랑군 조선현이 동일한 지역이라는 역사학계의 통설을 수용하더라도 중심지와 영역을 구분해 보아야 하고, 위만조

선 최고 지배층의 무덤은 남월왕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 역시 위만조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월국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주장한 바 있다(권오영, 2014; 2022).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위만과 우거의 무덤은 남월국 2대 왕인 조말(趙昧)의 무덤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미발견 상태인 위만조선의 왕성은 역시 남월국 궁서(宮署)유적을 보면서 그려볼 수 있다. 중국 광둥성 광주시에서 발견된 남월국의 왕궁과 궁서유적(왕궁 정원, 관청)은 조말의 무덤과 함께 “남월국의 유적”이라는 명칭으로 200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잠정 등재된 상태이다. 다민족통일국가론에 입각한 중국 역사학계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남월에 대한 연구는 중국 한대사(漢代史)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남월지역을 중국화하는 과정, 무제(武帝)에 의해 한화(漢化)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남월 문제(文帝; 趙昧)의 무덤인 남월왕릉을 남월왕묘로 격하시키고, 궁서유적에 대해서도 조정적인 관점이 주류를 이룰 뿐 남월국 자체의 역사적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다.

하지만 현지에 보존된 남월국 궁궐과 관청의 위용을 보면서 아직 찾지 못한 위만조선의 왕검성을 그려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낙랑토성 내부의 석조 도랑, 전돌을 깬 시설 등(東京大學文學部, 1964)은 낙랑군 치지로만 언급되지만 남월왕 궁서유적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남월국은 “진한말년 조타에 의해 영남지구에서 건립된 일개 지방정권”으로 규정되고 있으나(成國維, 2008) 실상은 이와 달랐음이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면 한의 외신으로 규정된 위만조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만조선의 성립시점(기원전 194년)이 남월국의 성립시점(기원전 204년)과 근접하며 멸망시점은 기원전 108년(위만조선), 기원전 111년(남월국)으로 더욱 근접한다. 양국 모두 한제국의 바깥에서 성장한 국가로서 진·한의 정치적·문화적 영향을 받았으며, 왕실이 재지계가 아닌 중국계란 점도 동일하다. 멸망 후 남월국에는 영남칠군이, 위만조선에는 사군이 설치되어 중국문화가 이식된 점 역시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낙랑군을 비롯한 한군현 연구도 영남칠군을 참조할 부분이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무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위만조선 이전의 묘제, 위만조선의 묘제, 위만조선 이후의 묘제를 고려할 때, 위만조선 이전의 묘제는 세형동검이 부장되는 목관묘가 주류일 것이고, 위만조선 이후의 묘제는 전실묘가 낙랑 고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이 중간에 해당하는 위만조선의 묘제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평양일대에서 목관묘는 낙랑군 설치 이후로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高久健二, 1995; 黃曉芬, 2005). 반면 국내 연구자들은 목관묘 중 일부를 위만조선의 묘제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월국 성립 이전 재지사회의 묘제, 남월국 이후 등장한 묘제, 남월국 멸망 이후 한묘의 급속한 확산 과정을 추적하면 위만조선 전후 시기 묘제변화의 양상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II. 남월국의 흥망성쇠

베트남 북부와 중국의 광둥, 광서, 절강지역은 구월(瓠越), 낙월(雒越), 백월(百越) 등으로 불리던 복수의 종족, 정치체가 발전하던 무대였다. 이중 구(瓠)와 낙(雒)은 자칭(自稱)이고, 월은 한족이 부른 명칭으로 추정된다(신동윤, 2003). 그런데 중국 사서에 월(越)이라는 명칭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단일한 문화공동체, 혹은 단일한 종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를 형성한 광동성의 남월, 복건성의 민월, 강소-절강성의 월국 등을 모두 월족이 세운 국가로 간주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월의 문화라는 것이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마치 동북아시아에서 예와 맥이라는 종족명이 널리 사용되었지만 이들의 종족적 정체성 내지 물질문화의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용이하지 않은 현상과 마찬가지로이다.

월이라 불린 집단들의 가장 큰 문화적 공통성은 동 썸(Dong Son)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이다. 크고 화려한 청동 북(銅鼓)을 특징으로 하는 동 썸 문화는 확실히 월과 관련성이 크며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준다. 중국 광서성에서도 동고(銅鼓)가 크게 발전하였는데 역시 월의 문화로 간주하고 있다(廣西壯族自治區博物館 編, 2010), 이러한 문화는 중국문화라기보다는 양자강 이남

과 동남아시아에 걸친 남방문화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월의 정치체 중 하나인 어우 락(Au Lac, 甌雒)국이 발전하였다. 어우 락은 하노이 인근의 꼬 로아(Co Loa)를 왕성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서는 동 썬 문화 이후 진·한의 문화가 순차적으로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준다(Nam C. Kim et al., 2010). 훗날 어우 락은 광동성에 중심을 둔 남월국에게 병합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우 락의 안 즈엉 브엉(安陽王)과 그의 딸 미주(眉珠)가 조타 아들의 계략 때문에 나라를 잃는 이야기는 고구려의 호동왕자, 낙랑공주 이야기와 닮아 있다.

기원전 221년 진이 6국을 통합하였으나 북의 흉노, 남의 월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다. 춘추전국시대 이후 중원 왕조와 여러 차례 분쟁을 겪었던 월의 땅은 흉노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진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강한 흉노보다 상대적으로 정복이 용이한 월에 대한 침공을 먼저 진행하였다.

진의 시황제는 기원전 220년 북순(北巡)과 치도(馳道)의 건설 시작, 219년 남순(南巡)을 마치고 본격적인 남정에 돌입하였다. 다만 남정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222년설, 221년설, 219년설, 218년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데 218년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張榮芳·黃森章, 1995).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50만 명 설과 8-10만 명 설이 병존하는데 전자에 힘이 실리고 있다(張榮芳·黃森章, 1995). 전쟁은 진의 패배로 이어지고 217년 진은 식량 운송의 성공을 위하여 “이졸착거(以卒鑿渠)”라 하여 총 길이 34km에 달하는 영거(靈渠)를 건설하였다.

214년에는 임효(任囂)와 조타(趙佗)가 공격에 성공하여 계림(桂林), 상(象), 남해(南海) 등 3군을 설치하였고, 이때 조타는 남해군의 용천현령(龍川縣令)이 되었다. 남해군은 번우현(番禺縣), 용천현(龍川縣), 박라현(博羅縣), 계양현(揭陽縣)으로 구성되었고, 군치는 번우현이다. 214년 이후 진승·오광의 난, 유방과 항우의 대립 등 혼란 속에서 진인(秦人)이 대규모로 영남지역으로 사민되고 유입되면서 다양한 인간집단의 융합, 경제적 발전, 대외교섭 활성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한 교체기에 연(燕), 제(齊), 조(趙)의 유민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위만이 등장하던 상황과 흡사하다.

조타는 208년 상관이던 임효(任囂)가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자 남해군의 실권을 장악하고 진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두절시킨 후, 진의

관리를 살해하였다. 206년 진이 멸망하자 203년 계림군과 상군을 병합하여 남월국을 건국하고 스스로 남월무왕(南越武王)이라 칭하며 번우(番禺)에 도성을 정하였다. 영남의 삼군을 중심으로 월인들을 병합하고 북으로 방어를 강화하면서 장사국(長沙國), 민월(閩越), 동구(東甌), 야랑(夜郎) 등지에 진출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전개는 위만조선이 주변의 세력들과 한의 통교를 막고 병위재물로 동방세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남월국은 건국 이후 한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5년 한 고조의 사망 이후 실권을 잡은 여후(呂后)가 동제(銅製), 철제 공구와 말(馬), 소(牛), 양(羊) 등의 거래를 중지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마침내 183년 조타는 ‘남월무제(南越武帝)’를 칭하면서 한과 대등한 관계임을 표방하였다. 이후 갈등을 겪던 양국은 179년 여후가 사망한 후 휴전을 하게 된다. 한 문제가 즉위한 후 양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조타는 황제 칭호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계속 황제를 칭하였다.

137년 조타가 사망하고 그 손자인 조말(趙昧)이 왕위에 오른 후 황제의 칭호를 계속 사용하였음이 그의 무덤에서 발견된 ‘문제행새(文帝行璽)’ 인장으로 확인되었다. 조말이 16년간 재위한 후 사망하자 122년 태자인 조영제(趙嬰齊)가 왕위에 올랐다. 그는 장안에 인질로 가서 한무제를 숙위한 적이 있어서 한에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무제와 문제의 새(璽)를 은닉하고 친한정책을 추진하였다. 조영제는 한족 출신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 조흥(趙興)을 태자로 삼았다. 조흥이 즉위한 후에는 남월국의 고유한 법제와 전통을 버리고 급속한 한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월국 지배층 사이에 알력이 생겨 토착세력의 대표격인 여가(呂嘉)가 조흥과 그의 모후를 죽이고 조흥의 이복형인 조건덕(趙建德, 조영제와 월족 여인 사이에서 탄생)을 옹립하였다.

이를 빌미로 한무제는 10만 병사를 일으켰다. 112년 3월 한천후의 공격이 실패한 후 가을에 다시 복파장군 노박덕(路博德)과 루선장군 양복(楊僕) 등이 이끄는 10만 명의 대군이 남월국을 침공하였다. 111년 여가와 조건덕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번우가 불타면서 이 전쟁은 남월국의 멸망으로 종료되었고, 그 땅에는 영남칠군이라 불리는 7개의 군이 설치되면서 한의 지배가 시작되었다. 남

월을 멸망시킨 한의 군대는 111년 가을에는 동월을 침공하고 110년에는 마침내 동월도 평정하였다.

남월국의 고토에 세워진 7개의 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왕성이던 광동성 광주시에 세워진 남해군, 광서성 북해시의 합포군,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의 교지군이다.

남월과 동월이 모두 평정되고 이를 기념하는 봉선 제사가 치러진 후, 서남이(西南夷) 전(滇)마저 복속되자 마침내 109년에 한의 위만조선 침공이 시작되었다(김병준, 2008). 이번에도 양복은 5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루선장군으로 참전하였다. 하지만 산동반도를 출발할 때 5만 명에 달하던 수군은 중도에 대부분 도주하여 7,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설상가상 왕검성 공방 과정에서 육군 사령관 좌장군 순채와 알력이 생긴 루선장군은 죄인신분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결국 108년 위만조선은 멸망하고 한의 군현지배가 시작되었다. 위만조선의 왕성이었던 왕검성에는 낙랑군이 설치되었다.

이렇듯 남월국과 위만조선은 중국계 왕실과 현지 세력의 결합, 진한 교체기의 혼란을 틈탄 건국, 외신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주변 세력을 통합하려는 노력, 한제국과 화전 양면의 복잡한 외교관계, 한인계와 재지계 지배층 사이의 알력,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한의 침공과 멸망, 그리고 군현지배의 시작이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한인인 조타가 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이월제월(以越制越), 월인의 습속과 습관에 대한 존중, 한인과 월인의 통혼, 자치의 허용 등을 거론하는데(黃森章, 2008) 이는 위만조선의 통치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좋은 비교가 된다.

한무제의 남월 침공으로 인하여 중국과 인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해상실크로드의 개통이 촉진되었다(石澤良昭, 2009). 그 흐름은 동북아시아에도 이어졌을 터인데 위만조선이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비록 남월국과 위만조선은 멸망하였지만 한의 군현을 매개로 남월지역과 위만조선지역이 연결된 것이다.

양국의 고지에 건립된 군현의 성격, 운명도 공통된 점이 많다. 낙랑군을 이해하는 데에 남월지역의 영남칠군이 유효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 주제는 그

자체로서 수많은 논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남월국 멸망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I. 남월국 관련 중요 고분

1. 광동성지역

남월국의 영토 및 세력권은 현재의 중국 광둥성과 광서성, 그리고 베트남 북부에 걸쳐 있었다. 특히 광둥성 광주는 왕성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유적이 산재한다. 그중에서도 남월왕궁서(南越王宮署) 유적, 남월왕릉은 진대(秦代) 조선(造船) 유적과 함께 광주 3대 발견으로 꼽힌다(廣州市文化局 編, 1999).

1) 개관

광주에서 조사된 한묘는 1,000기가 넘는다고 한다. 중국 학계에서 한묘라고 칭할 때 그 의미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으로 한대(漢代)의 무덤이란 의미인지, 한인(漢人)이 매장된 무덤인지, 아니면 한대 무덤의 영향을 받은 재지 세력의 무덤인지 구분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黃曉芬, 2000). 이러한 문제는 위만조선과 낙랑에 대한 설명에서도 존재하며 흉노 관련 서술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피장자가 흉노인일 가능성이 극히 높은 무덤도 한묘라고 칭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중국 학계의 한묘 시기구분은 아래와 같이 5기로 구분된다.

전한 전기: 진이 영남을 평정한 이후 남월국이 망하는 시기(기원전 214~기원전 111년)

전한 중기: 한 무제가 남월을 멸망시킨 이후 한원제까지(기원전 110~기원전 33년)

전한 후기: 성제에서 왕망시기까지(기원전 32~기원후 24년)

후한 전기: 광무제에서 명제시기까지(25~75년)

후한 후기: 장제에서 헌제시기까지(76~220년)

이 중에서 남월국과 관련된 시기는 전한 전기에 해당되며 전한 중기 이후는 남월국의 고토에 영남7군이 설치된 이후에 해당된다.

2) 주요 유적

(1) 남월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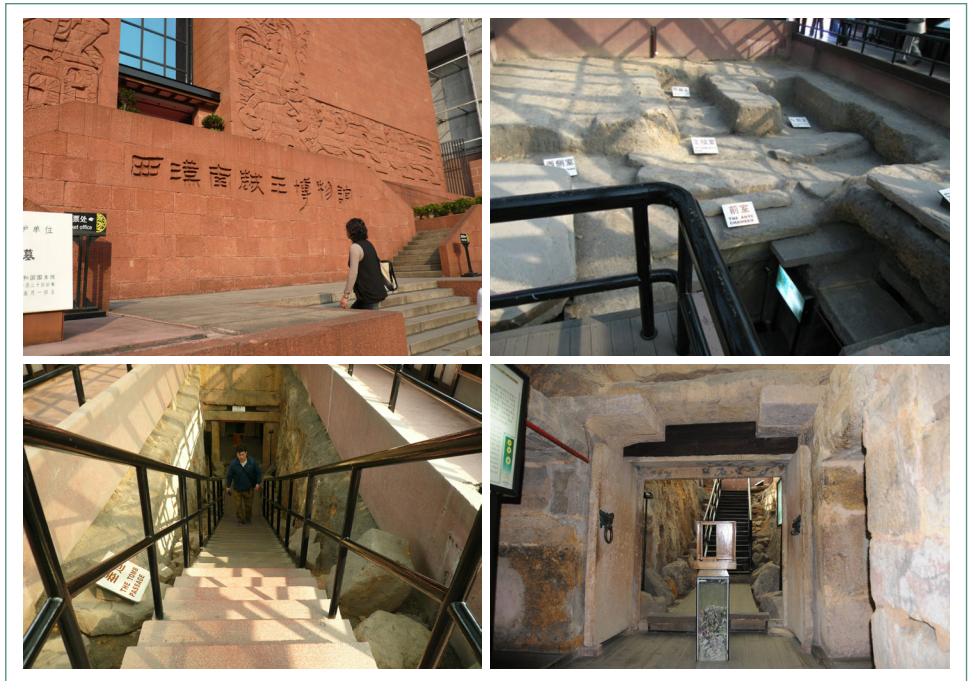
광둥성 광주시에 위치한 해발고도 49.71m 되는 상강(象崗)이라는 작은 산 위에 입지하는데, 1983년 건축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조타의 손자이면서 남월국 2대 왕인 조말(趙昧)과 그의 가족이 묻혀 있다(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廣東省博物館, 1991; 廣州市文化局 編, 1999). 이 무덤의 공식명칭은 1993년에는 서한남월왕묘(西漢南越王墓), 그리고 서한남월왕박물관이었다. 2021년 말에는 서한남월왕박물관과 남월왕궁박물관이 합쳐져서 남월왕박물관으로 되었다. 이 무덤을 왕릉이 아니라 왕묘로 표현하는 중국의 자세는 남월국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① 구조와 유물

잘 가공한 돌을 재료로 사용한 횡혈식석실묘로서 남북방향으로 묘도와 전실, 현실을 배치하고 전실의 동서에 동서이실, 현실의 동서에 동서 측실을 갖춘 다실묘이다(그림 1). 전체 면적은 100㎡에 달하는데 전실이 위치한 전부(前部)와 현실이 위치한 후부(後部)가 전조후침(前朝後寢)을 상징한다. 전실의 벽면과 천장에는 주(朱), 흑색으로 구름무늬 도안을 그려서 조당을 상징하게 하였다. 후부는 관이 놓인 공간(主棺室)과 그 좌우에 배치된 동서 측실, 관이 놓인 공간에서 가장 깊숙이 들어간 북벽에 마련된 공간(後藏室)으로 구분된다.

경사진 묘도는 길이가 10.46m 정도인데 출토된 유물을 볼 때 무사 1인이 순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묘문 앞 남쪽에는 장방형 목곽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대웅, 마차장식과 함께 문지기 1인이 순장되어 있었다. 대웅 중에는 “장락궁기”(長樂宮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한(漢) 장안성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실 입구와 후실 입구는 다듬은 돌로 석문을 만들고 금동제 포수를 붙였다. 전실은 남북 길이 3.1m, 동서 너비 1.84m인 장방형 평면을 갖추고 있는데 서벽 쪽에는 나무로 만든 수레 모형 하나, 동측에는 “경향령인”(景巷令印)을 소지한 피



출처: 필자 촬영

그림 1 남월왕릉(필자 촬영)

순장자 1인이 확인되었다.

동이실은 동서 방향으로 장방형을 띠고 있는데 내부 길이 5.24m 너비 1.75m 정도이다. 내부에서는 연회에 사용되었을 동제, 석제, 칠목제 악기와 술을 담았을 용기들이 다량 부장되어 있었다. “문제구년 악부공조”(文帝九年 樂府工造)라는 글자가 새겨진 청동기도 있었으며 젊은 악사 1인이 순장되어 있었다.

서이실은 진귀한 보물들(청동례기, 금은장식, 옥석보물, 갑주와 활, 화살, 수레장식, 오색약석(五色藥石), 인장봉니, 견직물, 도기와 석기, 칠기, 목기, 죽기, 동제와 철제 공구 등이 마포와 풀, 비단 등에 포장된 채 부장되어 있었다.

주관실에는 관과 곱이 하나씩 놓여 있었는데 묘주는 옥의를 입고 베개를 베고 있었다. 옥의 위아래에 다수의 옥벽을 올렸고 머리와 어깨 부위에는 용봉문 옹패 등 장식을 두었다. 허리 양측에는 철검을 배치하였다. 관과 곱 사이에 두

상(頭箱)과 족상(足箱)을 마련하였는데 족상 안에는 옥을 모방한 토제 벽(璧) 100여 점과 파르티아 은합, 두상에는 대형 옥벽, 옥각배(玉角杯)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옥기를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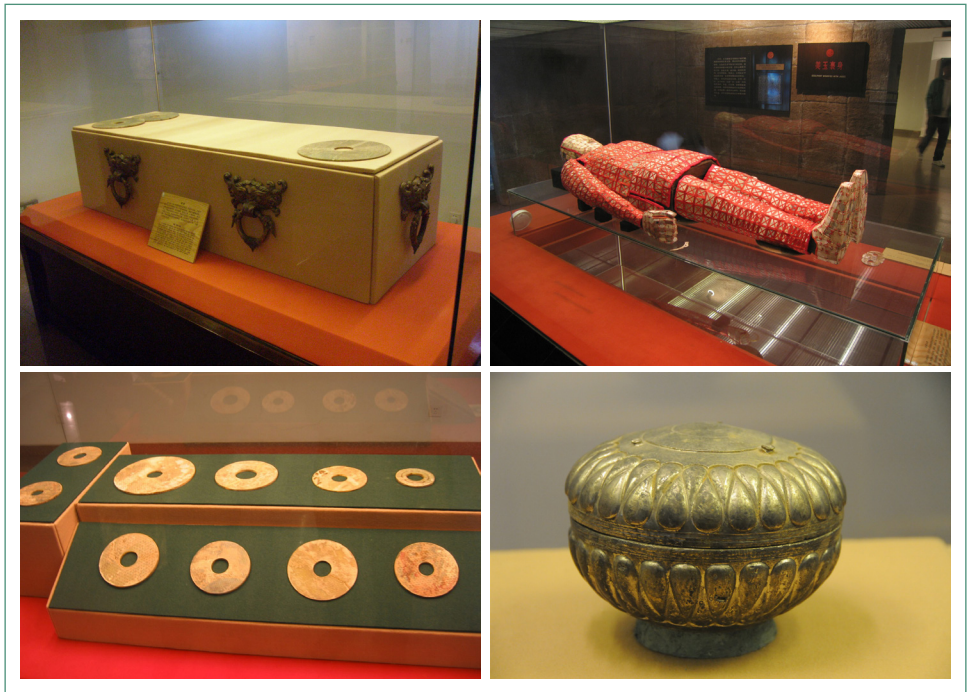
묘주의 몸 위에서 인장 9개가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문제행새”(文帝行璽) 금인(金印), “제인”(帝印) 옥인(玉印), “태자”(太子) 금인, “조말”(趙昧) 옥인 등이 주목된다.

동측실은 내부 길이 6.95m, 너비 1.61m 되는 공간에 남월왕의 비첩 4인을 매장하였다. “우부인새”(右夫人璽), “태부인인”(泰夫人引), “좌부인인”(左夫人引), “모부인인”(母夫人引) 등의 인장이 발견되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관은 모두 부식되었는데 동경, 옥기장식, 동제 허리띠장식, 은제 허리띠장식, 동제 향로, 토기, 칠기 등이 출토되었다.

서측실은 부역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구조는 동측실과 동일하고 총 7명이 순장되었는데 모두 목관은 없었고 부장품도 소량이다. 북편에 돼지, 소, 양을 희생으로 두었는데 2명의 피순장자가 이들과 섞여 있었다. 반면 5명의 피순장자는 남쪽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안치되어 있었다. 유물은 동제, 철제, 토제, 금제, 은제, 옥제, 석제, 칠기와 봉니 등 125점이 확인되었다.

후장실은 식품 창고의 기능을 하던 곳인데 평면은 동서 너비 1.8m, 남북 길이 2m로서 방형에 가깝다. 주관실과는 2개의 돌기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문도를 만들고 목문을 달았으나 나무는 썩고 동제 문고리 2점만 남았다. 실내에는 동기와 도기 130여 점을 쌓아 두었는데 조리기, 저장용기, 설거지용기 위주이고 날 짐승과 가축의 뼈, 패류 등이 발견되었다. “태관”(泰官) 명 봉니가 다수 출토되어 수장실의 기물은 태관이 감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장품 중에 “문제행새”가 새겨진 용뉴금인(龍鈕金印)과 “문제구년”이 새겨진 청동 구요(句鑰)가 발견되어 묘주가 2대 남월왕임을 알게 되었다. 문제행새에서 문제의 “제”(帝)는 황제를 의미하며, “새”(璽)는 황제의 도장을 의미한다. 문헌기록에는 남월국이 한의 외신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남월왕릉의 발견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황제를 칭하는 이른바 “외왕내제”(外王內帝)의 국가였음이 밝혀졌다. 우리 역사에서 발해와 고려가 “외왕내제”를 표방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남월국의 사례를 통해 위만조선도 “외왕내제”의 국가체제였을 가능성을 엿



출처: 필자 촬영

그림 2 남월왕릉 옥의와 유물

볼 수 있다. 종전 남월국에 대한 연구가 『사기』와 『한서』등 문헌 위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용뉴금인은 진한의 제도를 참작하였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 우선 이호뉴(螭虎鈕) 대신 용뉴를 채택한 점, 인면 규격이 방촌의 일반적인 크기를 초과한 점, “황제행새”가 아니라 굳이 “문제행새”라 한 점 등은 남월의 특색의 발로로 보인다.

244건의 옥기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옥의이다(그림 2). 옥편들을 직물로 엮었기 때문에 사루옥의(絲縷玉衣)에 속한다. 옥의는 한대 황제릉과 황족묘에서 보이는데 하북(河北) 만성(滿城)한묘(中山靖王 劉勝 부부묘)의 금루옥의 각 한 벌, 정현(定縣) 40호 한묘(中山懷王 劉修 묘) 금루옥의 한 벌, 강소(江蘇) 서주(徐州) 사자산(獅子山) 초왕릉(楚王陵)(劉戊 묘) 금루옥의 한 벌, 서주 토산(土山) 동한묘 출토 은루옥의

한 벌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남월왕릉의 사루옥의는 한의 능묘에서 보이는 금루, 은루, 동루에 비해서는 드문 것이며 기록에도 없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단계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옥편의 결합방식도 중원지역과 달라서 한 중앙에서 사여받은 것이 아니라 남월 공방에서 자체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보인다(岳南, 2001).

부장된 유물 중에는 생활용기와 연회용기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그중 취사용기는 30여 종 400여 점에 달한다.

② 장법

남월왕릉은 도굴되지 않고 발견되었기 때문에 부장품과 착장품이 1,000여 건에 이르며 그 재질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봉토를 크게 성토하지 않고 산을 이용하여 만든 점은 하북 만성(滿城) 한묘, 강소 서주 사자산 초왕릉과 동일하다. 다만 무덤의 재료가 돌이란 점이 다른 무덤과 다른데 이는 궁서유적에서 보듯 당시 치석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으며 돌을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풍조가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

전부와 후부의 구분, 전실과 좌우 이실, 후부의 주관실과 좌우측실, 후장부 등의 배치는 살아생전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 무덤 중에서 매우 특색이 있는 부분이다.

순장된 자가 15인에 달하는 점, 비교적 신분이 높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드문 현상이다. 중원에서는 한대가 되면 순장은 이미 사라진다. 타악기인 편종도 춘추전국시대에는 많은 사례를 보이지만 한대가 되면 이미 사라지므로 남월왕릉의 장제는 중원과 다른 점이 있다(하세봉, 2023). 이렇듯 남월왕릉에서 보이는 상장습속은 중원의 습속과(李如森, 2003) 차이가 많으며, 중원의 영향과 지방의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黃淼章, 2000).



출처: 필자 촬영

그림 3 동고 각종(상: 광서장족박물관, 하: 하노이국립박물관)

2. 광서성지역

1) 개관

광서지역 역시 광둥, 베트남 북부와 마찬가지로 동고(銅鼓)가 크게 발전한 지역으로서 월인의 활동 무대이다(그림 3). 광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은 합포(合浦)이다. 합포는 진(秦)나라 때에는 상현(湘縣)에 속하였고, 한나라 초기에는 남월의 중요 거점 중 하나가 되었다.

기원전 111년, 한나라 무제는 남월을 평정하고 합포군을 설치하여 5현(徐闻, 合浦, 高凉, 临允, 朱卢)을 두었다. 기원전 106년에 합포군은 교지자사부(交趾刺史部)에 속했다. 왕망이 왕위를 찬탈한 후, 합포현을 환정현(桓亭縣)으로 바꾸었다. 후한의 유수(刘秀)는 교지(交趾)를 교주(交州)로 바꾸었고, 합포군은 여전히 5개 현을

관할했으나, 현의 이름과 순서는 합포, 서문(徐聞), 고량(高涼), 임원(臨元), 주애(朱崖)로 바뀌었다. 삼국시대의 오(吳)는 합포군을 주관군(珠官郡)으로 바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포군으로 복구하여 5개 현을 관할하였고, 진(晉)도 이를 따랐다.

광서지역에서 발견된 한묘는 2010년 당시 2,000기가 넘었다. 주로 합포, 귀항(貴港), 오주(五州)에 집중되어 있고, 무덤의 연대는 광동성과 마찬가지로 전한 전기, 전한 중기, 전한 후기, 후한 전기, 후한 후기의 5개 시기로 나눌 수 있다(韋江, 2010). 다만 광동성과 광서성의 시기구분 명칭에서 초기와 전기, 후기와 말기 등이 통일되지 않고 사용되지만 이 글에서는 일률적으로 전기-(중기)-후기로 통일하여 명명하였다.

2) 주요 유적

남월국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전한 전기에는 수혈토갱묘(豎穴土坑墓)가 유행하였으며 묘도가 있는 대형 목곽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부 무덤은 바닥에 조약돌을 깔고 요갱(腰坑)을 설치했다. 부장품은 지역 특색을 지닌 동고(銅鼓), 반구정(盤口鼎), 제통(提筒), 양뿔 손잡이 달린 동종(銅鐘) 등이 있으며, 중원식 기물이 증가하여 정(鼎), 합(盒), 호(壺), 첩(鈎) 등의 청동 예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경(銅鏡)이 부장되는 현상도 나타났으며, 기하학적 모양의 인화문 도기가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속하는 무덤으로는 1975~1976년에 발굴된 하현(賀縣) 고채(高寨)의 M4, M5, M6, M7, M8호묘, 1976년과 1979년에 발굴된 귀항(貴港) 나파만(羅坡灣)의 1호분과 2호분, 1980년에 발굴된 하현 진중(晉中)의 1호분, 그리고 1987~1988년까지 합포의 문창탑(文昌塔)에서 발굴된 30여 기의 무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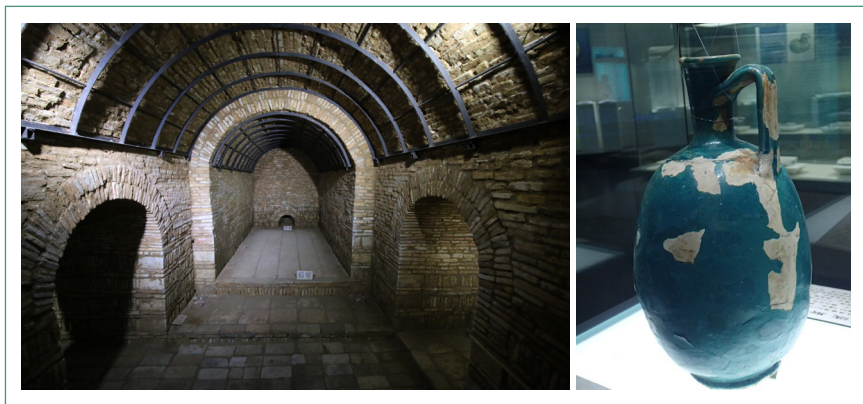
전한 중기에는 수혈토갱목곽묘(豎穴土坑木槨墓)가 유행하였다. 부장품 중 토제 창고, 우물, 부뚜막, 활석기(滑石器) 등 모형 의례용품의 종류가 증가했고, 오수전(五銖錢)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명경(昭明鏡), 일광경(日光鏡), 명문경(銘文鏡) 등 거울 부장도 증가한다. 이 시기에 속하는 무덤으로는 1991년 발굴된 귀항 심정령(深荊嶺)의 1단계 무덤, 2004년도에 발굴된 합포의 문창탑 27호묘, 1987년~1988년도에 발굴된 문창탑의 무덤 30여 기가 있다. 또한 1972년 서림보타(西林普驮)에서 발견된 동고묘(銅鼓墓)에는 한식과 토속식 유물 두 세트가 발견되었는데,

이들 역시 이 시기에 속한다. 이 시기의 무덤 중 일부는 남월국 후기에 포함되는데 평면 철형(凸形)의 수혈토갱목곽묘인 하현 금종(金鐘) 1호묘(廣西壯族自治區文物工作隊·廣西賀縣縣文物管理所, 1986)가 여기에 속한다.

전한 후기에도 여전히 목곽묘가 주류를 이루었고, 일부 대형 무덤에는 종종 외부 부장곽이 설치되었다. 도자기는 여전히 웅(甕)과 관(罐)이 주로 부장되며, 창고, 우물, 부뚜막 등 모형 명기가 더 성행하였으며, 장경호와 궤(簋) 등의 기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전을 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신(新)의 왕망전(王莽錢)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소명경과 일광경은 계속 인기를 끌었으나 거울의 크기는 중기에 비해 작아졌다. 이 시기의 무덤에서 유리구슬, 마노, 호박(琥珀), 수정 등 각종 구슬이 다수 발견되는 현상이 주목된다. 중요 유적으로는 1971년에 발굴된 합포의 망우령(望牛嶺) 1호묘, 1975년에 발굴된 합포의 당배한묘(堂排漢墓), 귀향 심정령 2기묘, 1999년에 발굴된 합포의 철귀령(凸鬼嶺) 1형 토굴묘, 2003년 발굴된 합포의 풍문령(風門嶺) 26호묘 등이 있다. 망우령 1호묘는 ‘묘도-2개의 이실-용도(甬道)-주실’로 구성된 목곽묘이다(廣西壯族自治區文物考古寫作小組, 1972).

후한 전기에는 전실묘가 등장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목곽묘에서 전실묘로 전환되는 벽돌과 나무의 복합 구조가 나타난다. 수혈토갱목곽묘가 여전히 다수를 점하는 지역도 있다. 창고, 우물, 부뚜막 등 모형 명기는 계속 유행하였으며 유리나 마노 등의 장식이 여전히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속하는 유적으로는 1990년도에 발굴된 합포 황니강(黃泥崗) 1호분, 1994년도에 발굴된 종산(鍾山)의 장옥동한묘(張屋東漢墓), 1996년도에 발굴된 귀향 마안령(馬鞍嶺) M1호분, 2001년도에 발굴된 합포 구지령(九只嶺) M5호분, 합포의 철귀령 벽돌무덤 등이 있다. 1983년도에는 흥안(興安) 석마평(石馬坪) M20에서 “永平 16년(서기 73년)에 제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무덤 벽돌이 발견되어 연대 측정의 기준으로 이용되었다.

후한 후기에는 전실묘가 주류 묘제로 자리잡으며(그림 4), 기년이 있는 전실묘가 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석실묘도 출현했다. 부장품으로는 청동기의 비중이 감소했고, 청동기를 모방하여 더욱 정교하게 꾸민 도기가 많아졌다. 부장품의 지역적 요소로 광서지역 묘제의 커다란 흐름은 수혈식목곽묘에서 횡혈식의 전실묘와 석실묘로 변화하는 양상, 재지적인 유물이 점차 중원식으로 바뀌는 변화



출처: 필자 촬영

그림 4 합포의 전실묘와 파르티아 도기

상, 전한 말기부터 유리, 마노, 호박, 수정 등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구슬의 부장이 늘어나는 점 등이다.

3. 베트남 북부

1) 개관

베트남 북부에서 금속문명의 발전과 초기 국가의 등장은 동 썬(Dong Son) 문화를 대상으로 연구된다. 베트남과 중국의 역사분쟁에 끌려들어 갈 이유가 없는 세계 고고학계에서는 당연히 물질문화의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동 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坂井隆·西村正雄·新田英治, 1998). 베트남 북부와 중국 남부에 넓게 퍼져 있던 동 썬 문화의 기반에서 어우 락을 비롯한 백월(百越)이 발전하고 철기문화, 초기 국가의 단계를 밟았다는 논리인데 현재의 중국 남부와 베트남 북부에 걸쳐 있었던 남월국의 위상이 모호해진다.

중국 학계의 견해는 한의 제후국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베트남 학계의 경우는 남월국을 베트남사에 편입할 것인지 통일된 입장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다. 베트남 입장에서는 남월국이 베트남사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중국사의 일부이기도 하고, 남월국을 세운 조타라는 인물이 중국인이며 어우 락을 멸망시

킨 침입자라는 이중성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 결과 베트남측에서는 중국과의 연관성이 짙은 남월보다는 오히려 동 썬 문화(베트남 북부), 사 흰(Sa Huynh) 문화(베트남 중부), 옥 에오(Oc Eo) 문화(베트남 남부)를 기반으로 베트남의 금속문명 발전과 국가 형성을 논하게 된다(ハ・ヴァン・タン 編著, 菊池誠一 譯, 1991). 사 흰 문화를 기초로 발전한 참파(Champa, 林邑), 옥 에오 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푸난(Punan, 扶南)에 대한 설명은 매끄럽게 이어지지만 동 썬과 남월국의 관계는 계승과 단절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할지 애매해진다. 동 남아시아사를 다루는 일본측 개설서나(池端雪浦 외, 2001; 鈴木峻, 2016) 유럽인들의 개설서(메리 하이듀즈·박장식·김동엽 공역, 2012)에서도 베트남의 초기국가로는 참파와 푸난이 거론될 뿐이다.

베트남 중부와 남부에서 발견된 한경(漢鏡)을 소재로 한 무제 이후 한의 영역 확장, 그리고 참파와 푸난이라는 초기 왕국 출현을 다룬 논문(YAMAGATA MARIKO, PHAM DUK MANH and BUI CHI HOANG, 2001)은 있으나 그 이전에 존재하였던 남월국에 대한 관심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북부를 대상으로 삼아 동 썬 문화, 어우 락 초기 국가, 남월국, 교지3군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변동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2) 주요 유적

(1) 꼬 로아(Co Loa) 유적

남월국 이전의 초기 국가 내지 정치체로서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어우 락이다. 어우 락 최초의 왕이라는 안 즈영 브영(安陽王), 그리고 조타의 남월국에 의한 어우 락의 멸망이 논의되면서 그 물질적 증거가 하노이 인근의 꼬 로아 유적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NAM C KIM, 2015). 꼬 로아 유적(그림 5)은 홍강유역에 입지한 3종의 평지성으로서 베트남과 미국측 공동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으며(Nam C Kim et al., 2010),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동 썬 문화유적을 조사한 바 있다.

꼬 로아 유적 조사를 통하여 베트남 북부의 문명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제기되었다. 박 보(Bac Bo, 北部), 즉 베트남 북부에서 문명화는 중화주의적 관



출처: 필자 촬영

그림 5 꼬 로아 유적

점에 입각하여 남월국 성립, 혹은 교지3군 이후라고 보는 중국측 시각이 한동안 주류를 점하였지만, 꼬 로아 유적 조사를 계기로 한 제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문명의 전수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들의 자체적인 발전을 주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Nam C. Kim, 2021).

(2) 루이 라우(Lui Lau) 주변 유적군

① 바이 노이 고분군

하노이 인근 루이 라우 유적(그림 6)은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교지군 산하의 현치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 곳을 용편성(龍編城)으로 보는 견해도 나온 바 있다(西村昌也, 2011). 이 성에서 동편으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전실묘 집중 분포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3.5km되는 곳에 바이 노이 고분군이 있다. 3기의 전실묘가 병존하는 형국인데 시기는 후한



출처: 필자 촬영

그림 6 루이 라우 유적과 인근의 전실묘

대, 구체적으로는 2세기 4/4분기로 추정된다. 평면이 세장한 터널형 전실묘 3기가 남북 방향을 장축으로 두고 병렬 배치되어 있다. 동편에서부터 A묘, B묘, C묘로 명명되었는데 A묘와 B묘는 길이 9.8m 정도이며 전실-주실-후실의 삼분된 구조로서 후실이 용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C묘 역시 나란히 인접하여 있는데 약간 규모가 작아 보인다. 주변에도 전실묘가 분포하지만 이러한 배치는 이곳이 유일하다고 한다(西村昌也, 2011).

② 타인 크엉 고분군(黃曉芬 編著, 2014)

루이 라우 동편 1km 정도 되는 지점에 소재하는 고분군이다. 청강(淸姜) 분묘군으로 소개되었는데, 청강은 타인 크엉의 중국식 한자 표기이다. 20세기 말에는 100기 이상이 잔존하였지만 21세기 이후 개발행위로 인하여 현재는 32기 정도만 확인된다.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상에 대한 정리 수준

에 머물렀는데 대부분 전실묘로 추정되며 교지군 설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동 썬(Dong Son) 문화기 유적

동 썬 문화는 홍강(紅江) 유역의 삼각주를 중심으로 발전한 철기 문화로서, 현재의 베트남 북부와 중국 남부를 무대로 발전하였다. 동 썬 문화의 중심연대는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후 300년 무렵에 해당하므로, 베트남 중·남부의 사 환 문화와 거의 동시기에 해당한다. 1950년대 동 썬 유적의 발굴을 통해 이 문화의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이후 청동 북, 즉 동고(銅鼓)의 사용이 주목되었다.

동 썬 문화의 묘제로는 카누 모양의 배를 본뜬 목관의 존재가 주목된다. 2002년 당시 총 171기가 확인되었는데, 지역적으로는 하노이 인근의 하 띠이(Ha Tay), 하 남(Ha Nam) 지역에 집중되며, 시기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300년 사이의 장기간에 걸쳐 있다(Bui Van Liem, 2005). 이는 재지적인 묘제가 어우 락, 남월국 단계를 거치면서도 면면히 이어져왔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목관묘는 쩡 닌(Quang Ninh), 하이 풍(Hai Phong), 하이 즈엉(Hai Duong), 흥 옌(Hung Yen), 하노이(Hanoi), 하 띠이, 그리고 하 남 성(省) 지방의 층적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다. 배 모양 목관묘는 특히 하 띠이 성과 하 남 성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이 두 성은 홍강과 락(Thic) 강 사이를 흐르는 누에(Nhue) 강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 모든 목관묘가 강이나 작은 하천, 바다 등 물과 가까운 곳에 분포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며(Liem, 2005), 목관의 형태나 입지로 보아 동 썬 문화의 장송의례에서 물과 하천, 바다 등이 중요한 의미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목관 안에 매납된 시신은 모두 곧게 편 신전장(伸展葬)의 형태로 안치되었는데, 팔을 몸 옆에 나란히 한 경우도 있고, 흥부나 북부에서 교차시킨 경우도 있다. 시신에 옷을 입힌 상태로 안치한 사례도 있으며, 쑤언 라(Xuan La)나 옌 박(Yen Bac) 유적에서처럼 줄로 시신을 단단하게 묶어 매장한 사례도 확인된다. 부장품은 대부분 시신의 머리, 몸통, 발치 쪽에 놓여 있다. 창, 화살촉, 검 등의 청동제 무기류는 날 부분이 머리 쪽을 향해 시신과 평행한 상태로 놓인 채 출토되었다. 이러한 목관묘는 동 썬 문화기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Lie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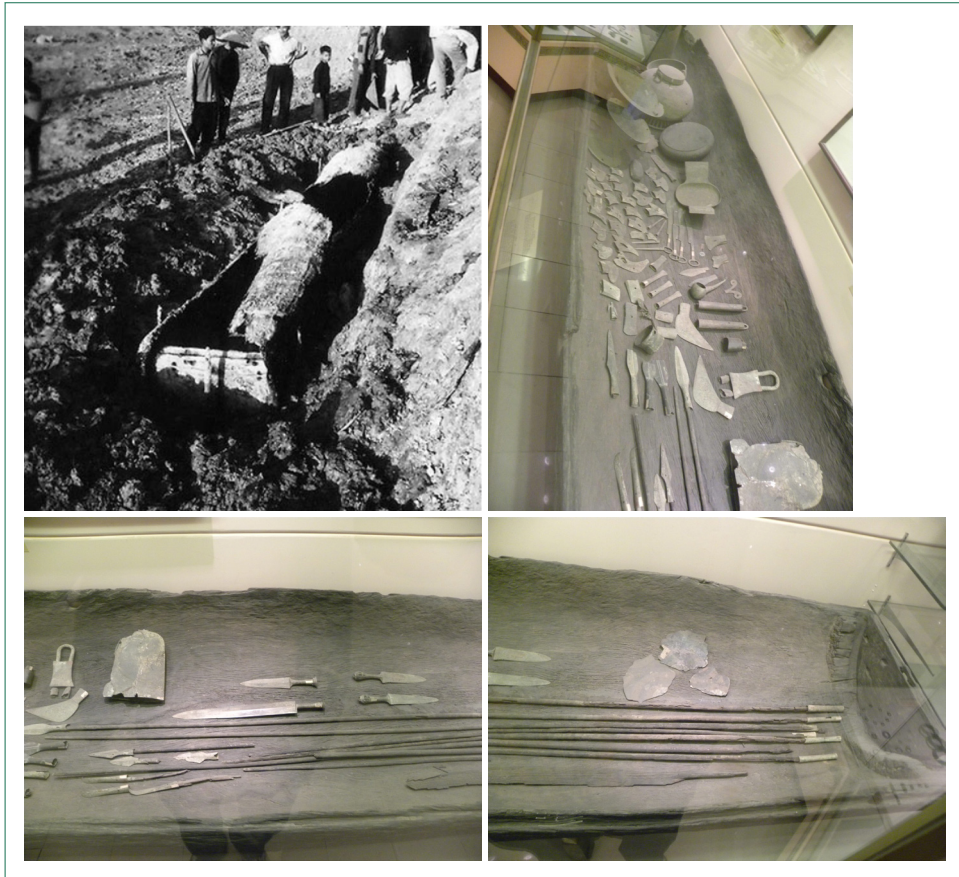
동 썬 문화의 무덤 중 대표적인 것은 비엠헤(Viet Khe), 차우 칸(Chau Can) 유적이다(권오영·최영은, 2020).

비엠헤 유적은 하이퐁 시의 뚜이응우옌(Thuy Nguyen) 인근에 위치하는데 1961년에 지역주민들이 땅을 파다가 선박과 그 안에 부장된 100여 점의 유물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총 5기의 목관이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긴 것은 4.5m에 달한다. 피장자는 천에 싸여 선박 안에 안치되었으며 90점 이상의 청동기가 부장되었는데 각종 용기, 동고, 동종(銅鐘), 검, 창, 전투용 도끼, 화살촉 등의 무기류, 그리고 도끼, 끌, 도자 등의 공구류로 구성되어 있다. 청동기류 외에도 철기, 목기, 숫돌, 직물류 등도 함께 출토되었다. 대부분의 유물은 현지 제작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남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피장자는 지역의 수장일 것이다. 목관과 부장품들은 현재 하노이의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그림 7).

차우 칸(Chau Can) 유적은 하 떠이 성의 푸쑤이옌(Phu Xuyen)에 위치하고 있는데, 1974년과 2000년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10기(1974년 8기, 2000년 2기)의 배 모양 목관이 발굴되었다. 비엠헤 유적보다 목관의 크기가 작고 부장품도 적은 편이다. 유기질 유물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나무로 만든 무기류 손잡이와 용기, 직물류가 출토되었다.

이렇듯 동 썬 문화의 일반적인 묘제는 토광묘, 통나무로 만든 목관묘이지만, 옹관묘가 사용된 지역도 있다. 주로 마(Ma) 강과 까(Ca) 강 유역의 토광묘 주변에서 냄비형태 옹관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옹관은 대부분 크기가 작고, 실생활에 사용하는 토기와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일부 옹관에서는 어린아이의 인골이 출토되었다. 성인이 매장된 토광묘나 목관묘 주위에 유소아가 묻힌 옹관이 배치되는 양상은 한반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동 썬 문화의 옹관묘는 대형의 전용 옹관이 아니란 점, 그리고 옹관의 매장 방식에서 직치(直置)와 횡치(橫置)가 모두 나타난다는 점이 뒤에서 설명할 사 흰 문화의 옹관묘와 다르다.

랑 박(Lang Vac) 유적(The Vietnam-Japan Joint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2004)은 하노이에서 200km 정도 남쪽의 응예안(Nughe An) 성 까 강 유역에 위치한다. 시간적으로는 동 썬 문화기부터 남월국시기에 걸친 분묘군이다. 1970년 이후 베트남 조사단에 의한 조사가 단속적으로 진행되다가 1990년에는 베트남-일본



출처: 좌상은 베트남국립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나머지 사진은 베트남 국립역사박물관 전시(필자촬영)

그림 7 비엠헌 유적의 배모양 목관

공동 조사단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391기의 분묘가 확인되었는데 토광묘가 주류를 점하고 있으며, 냄비형 옹관이 80여 기 이상 출토되었다. 무덤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토광묘나 옹관묘가 매장되고 그 위에 돌이나 토기편, 완형토기 등을 놓아서 묘역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옹관은 직치와 횡치가 병존하는데 후자의 비중이 높다. 토광묘가 다수여서 조사된 유구의 70% 정도를 점하는데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묘광이 없이 시신을 놓고 그 위에 토기편을 덮는 경우도 보인다. 기본적으로 옹관묘의 피장자는 유소아, 토광묘(평면 장방형)는 성인

을 매장하였고 소수의 평면 방형 수혈은 규모가 작고 이차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덤들이 조영된 시기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 이전이므로 남월국과 교지3군 시기이지만 중심 연대는 기원전 2세기 무렵이라고 한다.

이 유적은 동 썬 문화의 전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남월국이나 교지3군을 통한 중원문화의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유물 중에는 반량전,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가 보이지만 동검이나 장신구 등은 여전히 동 썬 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베트남 북부의 사례를 볼 때, 남월국의 지배 거점, 그 후의 교지3군 중심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재지문화의 잔존이 확인된다. 위만조선과 낙랑군의 경우에도 중심지역 이외에서 중전의 세형동검문화가 강인하게 잔존하는 현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IV. 고분의 비교를 통해 본 위만조선과 남월

1. 시간성

남월국 이전 광동성과 광서성, 베트남 북부는 동 썬 문화, 그리고 동고를 공통분모로 하는 월인의 공간이었다. 월인들이 모두 하나의 종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화적인 공통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요령성과 한반도 서북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가 발전하던 양상에 대비된다.

동 썬 문화를 토대로 등장한 어우 락이라는 초기 국가의 중심은 베트남 하노이 인근일 가능성이 높다. 어우 락 단계의 무덤은 베트남 북부에서 발견된 목관묘, 토광묘, 옹관묘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 단계의 유적이 중국 광동성, 광서성에서 선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유적의 부재가 원인이기보다는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진과 한이라는 왕조를 중심으로 현재 중국 영토 내의 다양한 문화를 해석할 경우, 재지의 고유한 문화들은 사각에 처하게 된다. 어우 락에 비교될 정치체는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준왕으

로 대표되는 고조선이다. 그 실체는 분명치 않으나 세형동검의 기반 위에 연식(燕式) 철기문화의 세례를 받은 세죽리-연화보 유형 문화로 추정된다.

어우 락은 광동성 번우를 왕성으로 삼은 남월국에 의해 병합당한다. 남월국은 한인과 월인의 연합왕조로서 연·제·조 유민들과 재지계 주민의 연합왕조인 위만조선과 유사한 성격이다.

남월국 단계의 광동성과 광서성의 묘제 변천은 서한 이른 단계에는 목곽묘, 그리고 이후 차츰 전실묘로 변화한다. 이런 과정은 중원지역과 그 인근이 모두 같은 흐름을 탄 것으로 보인다. 왕릉인 조말의 무덤이 다실(多室)의 횡혈식석실 묘인 점이 특이한데, 이는 왕실에 한정된, 그리고 중원문화의 영향이 농후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되며 횡혈식석실묘는 남월국의 주류 묘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베트남 북부에서는 남월국 단계 무덤의 조사와 연구가 크게 미흡한 상황이어서 동 씌 문화기의 목관묘나 토광묘, 옹관묘와 교지3군 이후의 전실묘 사이를 메워줄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위만조선도 완전히 같은 상황이다.

베트남 북부의 상황이 분명치 않지만 광동과 광서의 양상을 고려할 때, 남월국의 주류 묘제는 목곽묘였고, 위만조선 역시 목곽묘가 주류 묘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소형의 목관묘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종전에는 평양일대의 무덤, 특히 목곽묘에서 한식 유물이 출토되면 무조건 낙랑군 이후로 간주하였지만 그중에는 위만조선에 속하는 무덤도 적지 않을 것이다(오영찬, 2007; 오영찬, 2014).

남월국의 멸망과 영남7군의 성립, 위만조선의 멸망과 4군의 성립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이후 전실묘의 등장과 발전은 남월고지와 위만고지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한편으로는 남월국의 멸망과 영동7군의 설치, 위만조선의 멸망과 낙랑군 등의 설치 이후 한문화의 이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재고가 필요하다. 남월지역의 경우 후한 이후, 특히 마원(馬援)의 중(徵)자매 항전 진압 이후 한족 집단이 대거 이주하면서 한문화의 영향이 급격히 짙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Nam C. Kim, 2021) 위만조선과 낙랑군에 대해서도 한문화의 우상향적인 영향력 제고가 아닌 고조와 침체의 사이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간성

절강성에서 월과 관련된 유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인산월왕릉(印山越王陵)이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紹興縣文物報告管理局 編著, 2002). 절강성 소흥시 인근에 위치한 이 무덤은 평면 평행사변형(남북 320m, 동서 265m)의 주구 내부에 거대한 분구(길이 72m, 너비 36m, 높이 9.8m)를 갖춘 무덤인데 내부의 매장주체는 통나무를 이용한 목실이다. 마치 맞배지붕 형태의 가옥처럼 생긴 목실 내부에는 말구유형태(割竹形)의 목관이 안치되어 있다. 완전한 배 모양은 아니지만 중원과는 판연히 다른 월 무덤의 또다른 형태이다. 그러면서도 베트남 북부나 양광(兩廣)지역과의 차이도 엄존한다.

남월국과 위만조선은 비교적 광역의 공간에서 명멸하였고 그 내부에는 다양한 전통을 이어온 복수의 정치체가 존재하였다. 남월국의 경우 월이라고 통칭되는 공간이지만 크게 보아도 광둥과 광서, 베트남 북부지역은 나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선 월인 내부에서도 다양한 지역 문화가 존재하였을 것이며, 이곳에 이주한 한인들의 출신지역에 따른 차이, 이주민과 월인의 수적 비율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호북성 나주성(羅州城)과 주변 고분군의 조사 성과(黃風市博物館·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湖北省京九鐵路考古隊, 2000)를 보면 한고조 단계부터 이미 현이 설치되며 한문화가 깊숙이 유입되었음이 확인된다. 민월(閩越)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무이산성촌(武夷山城村) 유적(福建博物院·福建閩越王城博物館, 2004)에도 남월국 궁서유적처럼 한의 건축문화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따라서 번우나 합포 같은 지역이 남월국 존속 당시에 이미 한문화의 세례를 강하게 받았던 것에 비해 지방의 양상은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다.

위만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위만조선이라 불리는 정치체 내부 공간에도 중심지와 변경의 문화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왕검성에는 위만으로 대표되는 진·한계 왕족과 귀족들이 거주하고 번우처럼 진·한 문화의 농도가 짙었겠지만, 변경 지역에는 준왕의 고조선계 주민들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였을 것이다. 요령성 일대는 연, 제, 조 문화의 농도가 강하였을 것이고, 흉노문화와 접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반면 남부에서는 중국(衆國, 辰國), 혹은 한(韓)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즉 위만조선의 문화, 위만조선의 묘제를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멸망 이후 공간별로 한의 지배력이 미친 강도도 달랐다. 영남7군에 대한 한의 지배력과 방식이 달랐듯이 낙랑에 대한 그것이 달랐음은 평양 정백동 364호분 출토 호구부목독(윤용구, 2010)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3. 종족성

동 썬 문화를 기반으로 삼은 월인 사회에 중원문화와 한인의 파급은 진·한교체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해진다. 이러한 정황은 남월국 성립의 기초로 작용하였고, 한인과 월인의 연합왕조가 성립되었다. 위만조선 역시 위만으로 대표되는 한인과 준왕의 고조선 유민이 세운 연합 왕조이지만 위만의 등장 이전부터 이미 연, 제, 조의 주민들이 들어와 있었음이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만조선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이미 요동-한반도 서북지방에 다양한 주민집단과 진·한의 문화가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는 위만조선의 고지에서 발견되는 한식 무덤의 출현 계기를 낙랑군 설치로 삼는다는 점이다(高久健二, 1995; 왕페이신, 2007). 특히 목곽묘의 출현을 낙랑군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그 이전의 묘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낙랑군의 설치 이후 한문화가 들어온 것은 결코 아니다. 한반도 서북지방에 한문화, 혹은 진·한문화가 유입되는 과정은 최소 3개의 단계, 즉 진·한교체기, 위만조선의 성립, 낙랑군 설치 등으로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 이주해 온 한인도 진·한교체기, 위만조선 성립기, 낙랑군 설치기 등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여기에 묘제의 변화도 대응시켜야 한다.

V. 맺음말

한제국의 동쪽에 자리잡은 위만조선과 남쪽에 자리잡은 남월국은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흡사하다. 한의 지방관리였던 조타(趙佗)가 월인(越人)들과 합세하여 남월국을 세운 것이나, 역시 한의 지방관리로 기록된 위만이 재지인들과 힘

을 합쳐 새로운 왕조를 세운 것은 동일하여서 양국의 국가적 성격이 유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과의 사이에서 우호적인 관계와 적대적인 관계가 교차되면서, 한무제의 대군에 의해 왕성이 함락되고 군현이 설치된 것도 동일하다.

위만조선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사기』 조선전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고고학적 자료 역시 중국 동북지방의 비파형동검과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위만조선과 유사한 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는 남월에 대한 비교연구이다.

남월국과 위만조선은 모두 유라시아 동부, 혹은 동아시아사의 격변기에 존재하였던 정치체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한국사가 아니라 유라시아사, 동아시아사라는 시각에서 양국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바닷길을 통한 북부 베트남, 중국 남부와 한반도, 일본열도로 이어지는 원거리 교섭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남월국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

투고일: 2025년 10월 14일 | 심사일: 2025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2일

참고문헌

- 권오영. 2014. “한국 고대사 연구를 위한 베트남 자료의 활용.” 『한국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서울: 사계절.
- 권오영. 2022. 『미래를 여는 한국고대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권오영·최영은. 2020. “고대 동남아시아 내륙부의 묘제와 장제.” 『아시아리뷰』 10(1): 3-26.
- 김병준. 2008.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한국고대사연구』 50: 5-50.
- 메리 하이듀즈, 박장식·김동엽 공역. 2012. 『동남아의 역사와 문화』. 서울: 솔과학.
- 송호정. 2019. “위만조선의 왕검성 위치에 대한 최근 논의와 비판적 검토.” 『역사와 담론』 92: 5-42.
- 신동윤. 2003. “광둥지역과 중국학: 광둥지역 사회변천 과정의 역사적 고찰: 남월에서 청대까지.” 『중국학연구』 26: 3-29.

- 오영찬. 2007. 『낙랑군연구』. 파주: 사계절.
- 오영찬. 2014.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 자료와 위만조선.” 『한국고대사연구』 76: 95-125.
- 왕페이신 저. 오영찬 옮김. 2007. 『중국 고고학에서 본 낙랑고분』. 과천: 진인진.
- 윤용구. 2010. “낙랑·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 57: 45-79.
- 이청규. 2020. 『동북아시아 고고학 개설I: 선·원사시대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121.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 정인성. 2018. “고고학으로 본 위만조선 왕검성.” 『한국고고학보』 106: 104-137.
- 최몽룡. 1985. “고대국가 성장과 무역: 위만조선의 예.”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서울: 일조각.
- 하세봉. 2023. “南越國에서 해양교역의 역할: 南越王博物院의 전시소장품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27: 293-331.
- 한국고고학회 엮음. 2023. 『한국고고학이해』.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과천: 진인진.
- 한국고고학회. 2007. 『한국고고학강의』(개정신판). 서울: 사회평론.
- 高久健二. 1995. 『낙랑고분문화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 黃曉芬. 2005. “漢墓와 樂浪墳墓의 비교.” 『낙랑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회 제33회 학술대회논문집.
- Kim, Nam C. 저. 김용하 역. 2021. “고대 베트남과 중국 간 교류.” 『동양학』 83: 331-348.
- 廣西壯族自治區文物考古寫作小組. 1972. “廣西合浦西漢木槨墓.” 『考古』 5: 20-30.
- 廣西壯族自治區文物工作隊·廣西賀縣文物管理所. 1986. “廣西賀縣金鐘1號漢墓.” 『考古』 3: 221-229.
-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廣東省博物館. 1991. 『西漢南越王墓 上·下』. 廣州: 文物出版社.
- 張榮芳·黃森章. 1995. 『南越國史』.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 廣州市文化局 編. 1999. 『廣州秦漢考古 三大發現』. 廣州: 廣州出版社.
- 黃風市博物館·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湖北省京九鐵路考古隊. 2000. 『羅州城與漢墓』. 科學出版社.
- 黃曉芬. 2000. 『中國古代葬制の傳統と變革』. 勉誠出版.
- 成國維. 2008. “近十餘年南越國歷史研究綜述.” 『長江師範學院學報』.
- 岳南. 2001. 『嶺南震撼-南越王墓發現之謎』.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紹興縣文物報告管理局 編著. 2002. 『印山越王陵』. 紹興: 文物出版社.
- 李如森. 2003. 『漢代喪葬禮俗』. 沈陽: 沈陽出版社.
- 福建博物院·福建閩越王城博物館. 2004. 『武夷山城村漢城遺址發掘報告 1980-1996』.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 成國維. 2008. “近十餘年南越國歷史研究綜述.” 『長江師範學院學報』 24(4): 1-2.
- 黃森章. 2008. “龍川-南越王趙佗的興王府.” 廣東省珠江文化研究會嶺南考古研究專業委員會 編, 『嶺南考古研究』 7: 118-119.
- 余靜. 2009. “中國南方地區兩漢墓葬研究.” 吉林大學文學院 博士學位論文.
- 廣西壯族自治區博物館 編. 2010. 『甌駭遺粹: 廣西百越文化文物陳列』.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 韋江. 2010. “廣西考古六十年概述.” 『廣西考古文集』 4: 319-320. 北京: 廣西文物考古研究所.
- 東京大學文學部. 1964. 『樂浪郡治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ハ・ヴァン・タン 編著. 菊池誠一 譯. 1991. 『ベトナムの考古文化』. 人類學叢書12. 東京: 六興出版.
- 坂井隆·西村正雄·新田英治. 1998. 『東南アジアの考古學』. 東京: 同成社.
- 池端雪浦 外. 2001. 『東南アジア史2 -東南アジア古代國家の成立と展開』. 東京: 岩波書店.
- 石澤良昭. 2009. 『東南アジア多文明世界の發見』. 興亡の世界史 11. 東京: 講談社.
- 西村昌也. 2011. 『ベトナムの考古·古代學』. 東京: 同成社.
- 黃曉芬 編著. 2014. 『交趾郡治·ルイロウ遺跡I』. 下関: 東亜大学.
- 鈴木峻. 2016. 『扶南·眞臘·チャンパの歴史』. 東京: めこん.
- Bui Van Liem. 2005. “A Study of Boat-Shaped Coffins from Dongdon Sites in Vietnam.”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Bulletin* 25. IPPA.
- Kim, Nam C. Lai Van Toi, and Trinj Hoang Hiep. 2010. Co Loa: an Investigation of Vietnam's Ancient Capital. *Antiquity* 84: 1011-1027.
- Kim, Nam C. 2015. *The Origins of Ancient Vietn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aatliches Museum für Archäologie Chemnitz, Landesamt für Archäologie Sachsen.

Tr. by Martin Baumeister. 2017. *Archaeological Treasures from Vietnam*: 20-21.

The Vietnam-Japan Joint Archaeological Research Team. 2004. *The Langvac Sites*. 21st Century COE Program, Tokyo: The University of Tokyo.

Yamagata, Mariko, Phan Duk Manh, and Bui Chi Hoang. 2001. "West Han Bronze Mirrors Recently Discovered in Central and Southern Vietnam."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Bulletin* 21: 99-106. IPPA.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y of Ancient Vietnam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Wiman Joseon: Focusing on Nam Viet

Ohyoung K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iman Joseon was a dynasty that lasted from 194 B.C. to 108 B.C. It was founded by a person named Wiman who drove out King Jun of Gojoseon during the Jin-Han replacement period. It lasted 87 years until Wiman's grandchild, King Ugeo, was destroyed by the Han Dynasty, but there are too many unknown aspects with regard to its geographic location and national character.

However, the history of Nam Viet, which grew and collapsed in the south of China and northern Vietnam, has many similarities with Wiman Joseon. Therefore, referring to Nam Viet can be an effective means by which to understand Wiman Joseon. Looking at the tombs of Nam Viet and seven counties distributed in Guangdong and Guangxi provinces in China, and northern Vietnam,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with related data pertaining to Wiman Joseon and Nakrang-gun.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hat a new breakthrough in the study of Wiman Joseon will be achieved through comparisons of time, space, and ethnicity.

Keywords | Wiman Joseon, Pyongyang, Nam Viet, Guangzhou, Han Dynasty's Tomb, Wooden Chamber Tomb, Brick Tomb

